

“1만개 LED캔들 빛나는 진주시 夜한 매력에 빠져볼까”

진주시, 머물고 싶은 도시 변모
남강 별밤 피크닉 등 운영 인기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
개막 10일 만에 12만명 방문

진주시가 야간관광 특화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며 주목받고 있다.

남강의 자연 환경과 진주성, 유등테마공원, 축석루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야간 행사와 공연·미식·체험형 야간 축제 프로그램, 그리고 숙박 할인과 지역 상품권 이벤트 등 체류유도 정책이 결합돼 지역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선정 이후 관광 콘텐츠 개발과 여건개선, 홍보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는 남강 별밤 피크닉, 공연형 도보투어 ‘스테이지 온 JINJU’, 미식 여행 콕앤톡, 하모 나이트 미션투어, 나이트 자술랭 투어 등 다양한 야간



남강 위를 운항 중인 김시민호.

/진주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2000여명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단순 경유지에서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진주시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밤밤페스타 in 진주’에서는 1만개 LED 캔들 야간 전시와 전국 특화도시 디지털 판매 부스, 버스킹 공연이 어우러져 진주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받았다.

진주성 및 진주대첩 역사공원 일원

에서 개최 중인 ‘2025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 진주성’은 전통문화와 첨단 기술이 융합된 대표 야간관광 프로그램이다. ‘법고창신, 진주성도’를 주제로 공북문, 축석루, 의암 등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전시는 개막 10일 만에 12만 명이 방문하는 폭발적 반응을 보였다.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5 진주 국가유산 야행’은 ‘화력(火力) 조선, 진주성 총통의 기억’을 주제로 하며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된 프로그램이다.

진주성도를 따라서 국립진주박물관 야간개장, 진주 예인을 만나, 성안 저잣거리의 놀이판 등 ‘8야(夜)’ 핵심 테마로 구성된 차별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가족단위 관광객과 젊은층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진주의 대표 관광 아이콘인 남강 유람선 ‘김시민호’는 선상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콘텐츠다. 2022년 첫 운항 이후 매년 이용객이 증가해 현재까지 8만 5000여 명이 탑승했으며 올해는 1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최근 진한경 유람선 ‘김시민2호’도 추가 운항을 시작해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관광객이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경남)=선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고창군-국토교통부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

고창군과 국토교통부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공식화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63억원이며, 대지면적 89,602㎡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등을 구축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전북)=양수영 기자

상하이서 ‘마이스 로드쇼’ 부산시, 中 관광객 모신다

단체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맞춰
관계자 100여명 참석 공격 마케팅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을 계기로 대규모 마케팅에 나선다.

시는 1일부터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2025 부산 마이스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정책이 2025년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한-중 관광교류 재개 흐름에 맞춘 공격적 마케팅이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부산마이스 유치설명회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그간 부산은 2013년 중국 칭다오를 시작으로 베이징(2015), 광저우·선전(2016) 등 중국 주요 도시와 일본,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

국 등에서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상하이 주요 기업과 여행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 마이스 기업과의 비즈니스 상담회와 부산 마이스 도시홍보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의 대표 호텔과 여행사 등 10개 마이스 기업이 공동 참가해 ‘글로벌 마이스 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중국 시장 맞춤형 마이스 행사 유치에 주력한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자다.

부산대표단은 수백명 규모의 포상 단체 관광객 유치와 다국적 기업과의 신규 네트워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업행사 ‘바운스 2025’ 22일 개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벡스코에서 부산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세계적 창업 행사 ‘BOUNCE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화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5와 함께 개최되며 지역 신생기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사 등이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학술회의, 기업투자 설명회, 일대일 간담회,

개방형 혁신, 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행사는 지역 전략 산업과의 연계를 핵심 테마로 설정했다. 부산의 미래 전략 산업인 스마트해양을 중점 조명하며 신생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처음 선보이는 스마트해양 특화부스에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항만공사, 중소조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상시 설명회가 진행된다. 해양연구개발, 기술 이전, 창업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29일 서울 컨스텐 호텔에서 열린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 SMR 국가산단’ 투자설명회 열어

경주시, 건설전망 등 특강

경주시는 지난 29일 서울에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투자환경과 산업 비전을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남익 경북도 공향투자본부장을 비롯해 ▲심형진 서울대 교수(좌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손태영 한국수력원자

력 SMR사업기획부장 ▲권혁 한국원자력연구원 SMR원자로기술개발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경주 SMR 국가산단 IR 발표 ▲산업 동향 및 건설 전망 ▲지속가능 발전과 SMR ▲AI 시대와 SMR의 역할에 대한 특강으로 구성됐다. 패널토론에서는 K-SMR 상용화, 경제성 확보,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경주페이 캐시백 지급률 상향

경주시는 지역 화폐 ‘경주페이’의 월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7%에서 13%로 상향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사용자가 월 한도 70만 원을 모두 이용하면 최대 9만1,0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주페이는 선불 충전식 카드형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8월 말 기준 누적발행액은 1,006억 원, 사용액은 999억 원이며, 카드 등록수는 21만290장, 가맹점은 1만6,045곳에 달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경남도교육청

BTL 학교 124곳 인수인계 착수

경남도교육청이 2027년부터 차례대로 임대 운영 기간이 끝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학교 124개교의 인수인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BTL 방식은 민간이 학교 등 교육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교육청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임대(Lease) 형식으로 운영하는 민간 투자 방식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공공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인계는 단순한 운영 마무리가 아닌 앞으로 운영 방식 결정과 장기적 시설 관리 체계 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정읍 ‘내장산’ 관광AI 실증사업 선정

교통·주차난 등 과제 해결

정읍시는 내장산국립공원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관광AI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실증지로 최종 선정되며, 관광 교통과 주차난 등 오랜 과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장산국립공원 스마트관광 실증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관광공사가 집행하고, 시는 행정과 현장 지원을 맡는다. 관광공사가 실증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선정 기업이 AI 솔루션 개발과 운영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관광공사·실증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장산에 도입될 AI 서비스는 교통 혼잡, 관광객 동선, 안전 분석과 언어 불편 등의 5대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와 안전 강화, 외국인 편의 증진을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ysn6313@